

한국 잠재력 · 고객 요구에 지사 설립

미국의 ERP 전문업체 QAD가 국내에 정식 지사를 설립하고 중견 제조업체를 타깃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QAD는 지난 79년 설립된 ERP 전문업체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90년대 초부터 CSG, 대우정보시스템 등이 QAD의 'MFG/PRO'를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는 링크웨어와 이엠씨에스가 국내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글 / 권경희 기자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들에겐 QAD의 제조업 전문솔루션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 15일 방한한 다국적 ERP업체 QAD의 다니엘 렌더 최고재무책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선 제조업 전문ERP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QAD는 한국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시장을 공략할 것이므로 오라클과 SAP가 한국에서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QAD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부품, 기계, 소비재, 전기전자, 음식료, 의약품 등 6개 분야. 오라클, SAP 등 다른 외산 벤더들이 대기업에 치중돼 있는 것과 달리 자동차부품 등 중소제조업체에 특화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중국 등 해외로 적극 진출중인 한국업체들에겐 QAD 솔루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QAD는 전 세계 26개국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5200여개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도 진출해 포드자동차, 로크웰삼성오토메이션, 애버리데니슨코리아, 블랙&데커코리아 등 66개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QAD는 현재 세계 80여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국내에서도 66개사에 달하는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중소기업용 ERP시장은 최근 기존 외산 벤더들이 적극 진출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도 이 시장에 특화돼 있어 이번 QAD의 국내 공식 진출은 이 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국업체들에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전망이다.

렌더 최고책임자는 “QAD코리아 설립은 한국 내 QAD 고객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자동차 분야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계의 시장 성장 잠재력과 국내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QAD의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위한 지원은 물론 해외지사에서도 QAD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위한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시장의 경우 GDP 중 41%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제조업 시장이 크다”며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스템 구축이 장점이어서 시장 공략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

